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 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 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4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과거의 입찰제도는?

21세기인 현재에 비해 1960년대 인쇄업계의 입찰 방법은 어떠했을까? 인쇄문화시보는 1963년 4월29일자(제181호)에서 '현행 입찰제도의 상의 모순점'이라는 머릿글을 통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이 비일비재하다고 성토했다. 입찰에 응했을 경우 대규모로 운영하는 인쇄사들이 입찰에서 주축이 됐고 이로 인한 과다 출혈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시보는 이 같은 입찰 현실을 사무용품 간담회에서 제시된 시정문을 통해 고집었다. 인쇄조건의 현실화를 전제로 제시된 이 시정문에는 ▲낙찰가 제시 ▲내정가격 공개 ▲시설 증명 첨부 ▲지질검사 지양 ▲보증금의 조속한 반환 등이 주 골자를 이뤘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세계 최고의 정밀도(?)

1967년 4월30일자(제340호)에 발행된 인쇄문화시보에는 재미있는 광고가 하나 실렸다.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보증하는 최신 오프셋 인쇄기(SOLNA)에 관한 것이었다. SOLNA(132), SOLNA(125) 등 두 가지 오프셋 기종이 자세하게 소개된 이 광고는 세계 최고 속도(10,000/시)를 자랑하고 국내에서 보기 드문 단색 반절, 국반절 기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총무로 등에서 8색과 대국전 인쇄기가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하다. 특히 SOLNA(125) 기종의 제원에서 '잉크와 물의 무단조정이 가능해 더욱 정밀한 인쇄 조정이 가능해 졌다' 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인쇄 기술력의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PR 문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작업자가 인쇄 공정을 진행할 때 잉크 투입 시 적정량의 물의 공급을 수시로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입되는 최대 용지의 크기는 62×64cm로 이 기종들은 당시 한국총

대리점인 능수상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잉크 업계 우수 기업인

'강인한 저력을 가진 연구 노력형의 기업인'.

1971년 4월15일자(제431호) 인쇄문화시보는 다색 인쇄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1970년대 초반의 상황을 보도했다. 시보는 최수학 동양인쇄잉크공업사(현 동양잉크) 사장의 프로필을 상세하게 다루며 잉크 등 인쇄 관련 제품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시보는 최 사장에 대해 잉크 분야에서 꾸준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확고한 사업 기반을 닦은 인물이라고 호평했다. 또 정치, 경제, 문화 등 시대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일제 치하에서 순수한 기술 개발의 열정을 가지고 매진했던 인물이며 당시 공작기계과 졸업생인 그가 잉크업에 뛰어들었던 것은 고 최부용(형)씨의 영향이 컸다고 기술했다.

37세인 1957년에 현 동양잉크의 전신을 일궈낸 최 사장에 대해 시보는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강한 인물이라고 치하했다.

삼화공사 존립 위협

계성제지가 아트지를 생산하게 됨에 따라 당시 아트지 생산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던 삼화공사는 위기에 빠졌다.

1972년 4월1일자(제453호) 인쇄문화시보에 보도된 이 기사는 이로 인해 계성제지는 독자 노선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삼화공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리점 등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수요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예상된다'는 서두로 시작된 이 기사는 "계성제지가 4월중으로 기계 조립을 끝내고 5월부터 아트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 업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국제지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대단위 공장 시설이라고 밝혔다.

시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삼화공사를 필두로 한 아트지 총 판매 업체들의 밀바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부 아트지 제조업체에서는 실수요자와의 뒷거래가 이뤄져 가격 덩핑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수용 인쇄물 교도소로(?)

인쇄물은 순수하게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1976년 4월1일자(제538호) 인쇄문화시보에는 당시의 인쇄업이 처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사가 게재됐다. 관수용 인쇄물을 교도소가 수주해 인쇄업을 영위한다는 보도다. 당시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동훈)이 정부에 요청한 바에 따르면 대구 교도소가 관수용 인쇄물을 수주 받기 위해 교도소 내에 인쇄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의 일체 단결된 모습을 촉구하며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 행위'라고 일축했다. 당시 촉구에 관한 건의서는 경북도지사, 대구상공회의소 소장 등 관계 주무부처에 제출됐으며 교도소에 투입된 기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조절해 달라는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결국 지방해 달라는 건의서의 영향으로 관수용 인쇄물은 한동안 수주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사진압착기 개발

사진을 압착해서 인쇄하는 사진 압착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1977년 4월1일자(제560호)에 보도된 이 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제목을 바탕으로 압착기 부문에서 많은 발전이 예상된다라는 관계업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보에 따르면 이 사진 압착기는 당시 한국일보별관 1층에 자리잡고 있었던 한국종합물산(주)에 의해 개발됐으며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해 저변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미국 등 세계 각 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소규모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 부업으로도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진 압착기는 관광 및 일반 기념 사진을 비롯, 신제품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 하지만 시보에는 제품의 기본적인

제원 및 가격이 제시되지 않았다.

파우더 없는 오프셋 잉크 개발

인쇄문화시보는 1978년 4월1일자(제582호) 보도를 통해 파우더가 필요없는 오프셋 잉크가 개발됐다고 밝혔다.

'SM'이라는 상표로 시판된 이 잉크는 신하잉크제조공업사(대표 주신철)가 개발에 성공했으며 오프셋 인쇄물을 필요할 때 첨가되는 파우더가 전혀 필요치 않다. 시보는 작업 공정을 줄일 수 있고 필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호평하며 신하잉크 기술진이 2년간의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선을 보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시보는 'SM'이 아트지 및 마닐라지에 인쇄할 때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뒷몸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기술했다. 또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공장 내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기계의 마모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輕) 인쇄업 명문 확정

1979년은 경인쇄업이 일반인쇄와는 차별화된 명문을 추구하고 나선 해였다.

인쇄문화시보는 1979년 4월16일자(제607호) 보도를 통해 당시 일반 인쇄와 모호한 관계에 놓여 있던 경인쇄업이 명문을 규정하고 세분화된 사업영역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밝히며 업종 분류상 소분류의 인쇄업과는 별도로 경인쇄업이 타자조판 ▲공판 ▲프린트 등으로 세분화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이번 명문 규정으로 인해 애매 모호한 위치에 있던 경인쇄업자들은 서류상의 분류를 통해 입지가 확고해졌다. 당시만 해도 인쇄·출판업의 소분류에는 인쇄업, 출판업, 제본업 등 3업종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었다.

〈장홍일 기자〉